

과목: 대학 글쓰기

이름: 선승욱

학과: 컴퓨터 정보보안 전공

학번: 202310807

1. 서론, 본론, 결론 구분 좋음.
2. 참고문헌은 있으나 각주가 없음.
3. 임사체험이 뇌기능 저하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더 필요.
4. 좀 더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가 필요함.

제목 : 영혼과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1. 서론

어린 시절, 사후세계의 존재와 영혼에 관한 호기심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사후세계와 영혼의 실재에 대한 입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러한 현실을 어린 시절에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 혹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후세계에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개인의 신념체계, 종교적인 이유, 정신적인 상태 등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신념을 살펴보면,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본론

사후세계와 영혼을 존재한다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영혼은 인간의 신적인 본질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측면과 함께 신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혼은 삶의 존재 이전에도 존재하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존속한다고 여겨집니다. 사후세계는 죽은 후에 대비된 삶의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 지옥, 혹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영생을 맞이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영혼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인간은 육체와 함께 신성한 영혼을 갖게 되며, 이는 삶의 기초를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속하며, 개인의 독립적이고 영원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죽은 후에는 개인의 영혼이 천국, 지옥, 또는 연소 부분인 연도(연두)로 향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최후 심판을 거쳐 영원한 생명을 보내게 될지, 또는 지옥에서 영원한 처벌을 받을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교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 하나인 심리적 안정과 의존이 영혼과 사후세계를 믿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등에서 생기는 불안감을 종교에 의지해서 해결하는 것과 같이, 사후세계와 영혼을 믿는 것 역시 죽음에서 생기는 불안을 이유로 믿는 것 입니다.

2.1

영혼은 종교, 철학, 문화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주장들일 뿐입니다.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의식과 인지 기능은 뇌의 활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손상, 환각, 의식 장애 등 다양한 뇌 상태는 인간의 의식과 인지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관찰은 영혼이 별개의 실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주장과 어긋납니다. 또한 현대 의료 이미징 기술인 MRI (자기 공명 영상) 및 CT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을 통해 뇌의 활동과 구조를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특정 기능이나 경험과 연결된 특정 뇌 지역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뇌의 활동이 인간의 인지 및 정신 활동을 설명하는 데 충분합니다.

2.2

종교에서 제시하는 사후세계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근거 중에는 죽었거나 죽음에 가?웠던 사람이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17일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사망 선고 10시간만에 다시 일어나 사후세계와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중단 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에 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비현실적이거나 환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혈액 물질이 변환되어 이로 인해 뇌의 대사가 불균형이 생겨, 화학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현실적인 경험을 유발합니다.

3. 결론

종교적인 시각에서는 영혼과 사후세계가 인간의 영적인 삶과 존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불확실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높은 신뢰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과학적 지식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사후세계와 영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지식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세계와 영혼을 믿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주로 개인의 신념체계, 종교적인 이유, 정신적인 상태 등 다양한 이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통해 불안함을 해소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영혼과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과 종교, 신념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상호간의 이해와 조화를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과 과학적 지식이 상호보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폭넓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김휘란, “사망 선고 10시간 만에…기적처럼 살아난 83세 여성”, 스포츠뉴스, 2020.02.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72968

작성자 알수없음,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세상! 사후세계는 정말 존재할까?”, 서울경제, 2010.05.14. <https://m.sedaily.com/NewsView/ZMNLHZ5R6/#cb>